

<특 강>

환경복원시대에 있어서의 청계천복원의 의미

김 장 건

(서울특별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 홍보팀장)

1. 환경복원시대의 도래

- 경제성장으로 인한 개인의 편리함의 다른 한 측면에 쾌적한 환경에의 욕구가 있음.
 - 옛날의 쾌적했던 환경에의 그리움은 내면적인 성향이 강하여 외부로 표출이 잘 안되나 쾌적한 환경은 시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인식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음.
- 환경복원시대에 있어 개발과 보전은 서로 반대이거나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고 오히려 상호보완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청계천 복원사업은 환경보전사업이면서 동시에 개발사업임.
 - 혹자는 청계천 복원사업이 보전이란 이름 하에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세계적인 흐름으로서의 환경복원 내지 환경재생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데에서 나오는 견해임.
 - 개발이나 보전이나 하는 대립적 논쟁은 20세기적 패러다임에 근거한 낡은 것임.

2. 인간과 환경의 관계 재정립

- “자연에 함부로 손대지 말라”는 보존주의자(preservationist)와 “죽어가는 자연에 손을 대어 살려내야 한다”는 복원주의자(restorationist)의 갈등관계
- 자연,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개념을 둘러싸고 양자간에 의견 대립
 - 복원주의자는, 보존주의자들이 자연과 인간을 서로 대립적 관계로 보는 불건전한 이원론(unhealthy dualism)에 근거하고 있다고 비판함.
 - 주류 산업사회에 불만을 표시해온 환경론자(envIRONMENTALIST)들은 일반적으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대립적으로 보는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음.
 - 보존주의자가 자연을 인간보다 우위에 두고, 산업사회의 주류가 인간을 자연보다 우위에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모두 한계를 지님.
- 건전한 복원주의자만이 자연을 착취하지 않으면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을 찾을 수 있음.
 - 체계천 복원사업은 건전한 복원주의자의 철학을 가지고 접근하는 좋은 사례임.
 - 체계천 복원사업의 성공적 추진은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도시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한다는 시대사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것은 시대 정신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임.

3. 세계도시의 흐름과 서울

□ 세계도시의 흐름

- 도시 패러다임의 변화
 - 고대도시의 탄생(BC 3000년경) : 농경사회로 발전하면서 잉여 생산물의 교환 필요성에 따라 도시 태동
 - 중세도시 : 자급자족의 도시
 - 산업혁명이후 근대도시의 성장과 도시문제 발생 : 주거, 교통, 환경
 - 19세기 후반 도시 슬럼화에 대응한 각종 대안 도시(Good City) 운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됨

- 대중 교통에 의한 교외도시: 런던, 파리, 뉴욕(1900~1940)
- 전원 도시: 런던, 파리, 베를린, 뉴욕(1900~1940)
- 지역계획의 출현: 에딘버그, 뉴욕, 런던(1900~1940)
- 아름다운 도시운동: 시카고, 뉴델리, 베를린, 모스크바(1900~1940)
- 코르뷔지안의 광채 도시: 파리, 브라질리아, 런던,(1920~1970)
- 자족 공동체: 에딘버그, flak,버어클리(1890~1987)
- 기업도시: 발티모어, 홍콩, 런던(1975~1987)
- 탈근대주의, 지속가능한 개발, 친환경적인 도시
 - 20세기 말부터 근대성에 대한 의문으로 출발하여 21세기 도시관리의 화두가 되고 있음

□ 서울 600년 회고

- 자연과 어우러진 定都
 - 산수를 배경으로 풍수지리에 기초한 서울의 도읍 입지는 자연과 공생하려는 선조들의 친환경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임
- 풍수지리에 입각한 정도
 - 서울은 조산(북한산), 主山(백악 또는 북악), 左靑龍(웅봉과 낙산), 右白虎(仁王山), 그리고 案山에 해당하는 남산에 이르기까지, 國都風水면에서 명백한 명당
 - 산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하천의 방향인데, 객수인 한강이 동에서 서로 흐르고, 명당수인 청계천이 서에서 동으로 흐름. 서울의 중심을 흐르는 청계천이 남으로 곧바로 흐르지 않고, 동쪽으로 흘러 서울분지를 지나서 한강에 유입하는데, 하천이 분지를 빠져나가는 水口가 산에 둘러싸여 밖에서 볼 수 없는 것을 풍수에서는 이상적인 산수의 배치로 봄.
 - 산수의 배치와 더불어 땅 속에 흐르는 초자연적 신비력이 집중된 곳이 穴이고, 그 혈의 전면 뜰이 명당인데, 명당이 넓어야 좋음. 서울은 이 명당에 해당하는 청계천을 중심으로 평지가 넓은 것이 또한 길지의 조건에 부합함.
- 개발 지상주의
 - 한국전쟁 등 역사적인 사건과 각종 인프라 집중에 따른 경제적 흡인력은 서울의 팽창을 가속화시킴.
 - 600년 역사도시 서울은 불과 40여 년이란 짧은 시간만에 모든 것이 단절

- 현대 도시계획의 역사는 자연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시도였음.
- 개발이나 보전이나, 자연이나 인간이나 는 등의 이분법적인 대립구도로 갈등 관계 조장

□ 서울의 문제점 분석

- 경제개발 우선의 정책으로 인한 비인간적인 도시
 - 왜곡된 근대도시의 만연으로 인간으로부터 멀어진 도시
- 과거의 부정에 출발된 그릇된 시각으로 역사가 단절된 도시
 - 정도 600년의 고도이면서도 급속한 파괴로 정체성을 상실
- Solid 중심의 비환경적인 도시
 - 잠재력이 없다

4. 서울의 비전 - 왜 청계천복원인가?

□ Re-Seoul

-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Sustainable 잠재력 부여
 - 자연과 인간이 공생할 때만이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담보할 수 있음
 -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은 자연계의 지식을 도시 공간에 적용
- Bio-urbanism
 - 청계천복원은 단순히 하천복원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을 위한 잠재력을 부여하는 과정
 - 물, 태양, 바람 등 자연 인프라를 건물, 도로 등 인공인프라와 적절히 결합시키는 바이오 어버니즘의 모범 사례가 될 것임
 - 복원 후 청계천은 도심 생태환경의 출발점인 green infrastructure가 될 것

□ 동북아 중심도시

- 이제는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임.
 - 서울은 입지, 인프라 등 동북아의 중심도시로의 성장 잠재력 풍부
 - 청계천 복원으로 환경과 생명이 살아나는, 문화가 숨쉬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면 그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음.

- 그 논의 중 하나로, 현재 학자들간에 논의되고 있는 <동북아개발은행> 이 설립되면, 동북아개발은행을 유치하는 도시가 동북아의 금융중심도시가 될 것임.
- 서울은 환경을 중시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경험을 축적한 도시로서 입지 유리.
- 청계천 복원으로 서울과 우리나라의 이미지, 브랜드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광고효과도 기대

5. 청계천 복원의 의미

□ 청계천은 단절된 역사의 복원

- 청계천 복원은 팽창 일변도의 근대성에 짓밟힌 역사성의 회복
 - 콘크리트 더미에 파묻힌 광고는 근대화의 부작용
 - 광고, 수표교, 오간수문교 등의 복원은 단순한 문화재 복원이 아니라 잃어버린 역사성,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임

□ 청계천은 환경의 복원

- 물은 생명의 근원 : '태일생수'
 - 물은 수량과 수질 관점에 앞서 생태계의 결정적 요소라는 근본적 시각이 중요
- 물로 시작되는 도시생태계 복원
 - 하천수질 개선, 하천 생태계 복원, 토양 피복도 개선, 숲과 녹지의 확충, 복개 하천 원상회복 등은 도시생태계 복원에 기여

□ 청계천 복원은 통합의 문화

- 물은 통합의 상징
 - 하천의 물은 도시를 양분하기보다는 오히려 파편화된 도시의 부분을 서로 이어주고 묶어주는 역할
- 분단시대의 복개하천을 통일시대의 열린 하천으로

□ 청계천 복원은 인간중심의 도시 만들기

- Solid 중심에서 Void 중심으로
 - 인간에게 친화적인 '여유'를 만들
- 건물, 차량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 에피소드 : '人 + 車'의 개념

6. 일부 비판적 시각에 대한 반론

□ 왜 서두르나

- 세계적으로 유명한 꿈의 도시인 브라질 꾸리찌바시의 도시계획 원칙은 저비용, 검소함, 그리고 속도임
 - 꽃의 거리가 있는 도심부 간선도로를 보행자 광장으로 바꾸는데 1주일 소요
 - 오페라하우스를 시가 구입한 폐광지역에 2개월만에 건축하고 주변지역을 자연상태로 복원하였음.
 - '바리귀 공원'과 같은 대규모 공원을 불과 20여일 만에 개발
- 꾸리찌바의 전시장인 자이메 레르네르는 "행정에 있어 속도는 신뢰감을 가져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
- 도시정책은 느림과 빠름의 조화가 필요한데, 환경복원 사업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 교통대책

- 교통정책의 대상은 자동차가 아니라 사람이다.
- 승용차 중심에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 過速에서 人速(걷고싶은 도시)으로
- 2년 10개월 간의 전면보수를 위한 통제기간에 복원 가능

□ 상인대책

- 철거, 수용 등 인위적인 상권개편이 아님

- 낡고 위험한 고가/복개 구조물 대신 친수적인 환경 조성으로 영업환경 개선
- 재개발 및 이주단지 조성 병행으로 자율적인 상가 재정비 유도

□ 안전대책

- 복개 및 고가 구조물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反인간적인 구조물로, 시급한 대책 필요
- 2년 10개월간의 전면 보수 이후에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음.
- 항구적인 안전대책은 철거 후 자연상태로 복원하는 것.

7. 결 론

- 전 세계적으로 많은 도시들이 도심부를 흐르는 소하천의 복개된 상부의 콘크리트를 걷어 낸다거나 수변 공간을 복원하는 사업을 다양하게 벌이고 있음.
- 21세기 환경복원시대에서는 개발과 보전은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고 상호보완의 개념인 바, 청계천복원사업이 보전사업이나 개발사업이나 하는 논쟁은 무의미함.
- 개발시대에 복개해버렸던 도심 하천들을 원상 회복하여 그러한 생태복원사업들이 하천경관 및 수질을 개선하고 공동체의식도 함양하며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의 바람직한 방향임.
- 청계천 복원사업은 자연과 인간의 공생이라는 이념에 충실한 도시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한다는 시대사적 의미를 담고 있음.

※ 참고자료 : 국내외 환경복원 사례

< 한국사례 >

① 백두대간 복원

- 1990년대 중반부터 식생현황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백두대간에 다양하고 희귀한 동식물이 서식한다는 사실이 알려짐.

② 비무장지대의 생태계 보전

- 반세기 넘게 출입이 금지된 비무장지대는 다양한 생태경관을 형성하면서 동식물의 서식처 제공

③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의 환경복원

- 버려진 땅이었던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가 친환경적 공간으로 복원됨.

< 외국사례 >

① 세계적으로 유명한 꿈의 도시인 브라질 꾸리찌바 시의 도시계획 원칙은 저비용, 단순함과 겸소함, 그리고 속도

- 속도감 있게 진행된 환경복원사업 사례
 - “꽃의 거리”가 있는 도심부 간선도로를 보행자 광장으로 바꾸는 데 1주일 걸렸음.
 - 시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오페라하우스 “오페라 데 아라메”를, 시가 구입한 폐광지역에 2개월만에 건축하고 주변지역을 자연상태로 복원하였음.
 - “바리키 공원”과 같은 대규모 공원을 불과 20일만에 개발
 - 석산개발이 끝나 버려진 땅이 되어버린 채석장에, 오래된 전신주를 재활용하여 건물 기둥을 삼은 환경개방대학을 3개월만에 완공
- 꾸리찌바의 전 시장 자이메 레르네르는 “행정에 있어 속도는 신뢰감을 가져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
- 도시정책은 느림과 빠름의 조화가 필요함.
 - “환경복원” 사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교훈을 얻게 됨.

② 미국의 도시하천 복원사업 사례

- 토양침식 방지와 홍수피해 저감

- 캘리포니아주 도시하천 위원회(Urban Creek Council)의 활동으로, 도시하천 복원계획(Urban Streams Restoration Program)이라는 조직을 수자원국 산하에 설치. 1985년부터 1995년까지 이 프로그램은 160개 하천복원사업에 예산지원을 했음. 대표적 사업으로 식물 재료를 사용한 혁신적인 하천제방 안정화 사업, 홍수방지능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혁신적인 수로 설계, 폭우 관리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암거 제거와 복개하천의 원상 복원, 홍수피해 저감을 위한 토지매입 등이 있음.

- 공동체의식의 재창조

- 오클랜드의 한 인구밀집 도심부 주민들은, 도심부에 가까운 자기 동네 한 가운데에 캘리포니아 고유 야생종의 서식처를 만들기 위해 Glen Echo Creek를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 후 울타리를 쳤음.
- 로스앤젤레스 강(Los Angeles River)은 미 공병대의 하천 직강화 사업 결과 길이 48마일에 이르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변했음. 이 사업은 홍수방지를 위한 미 공병대의 역할을 인정한 1936년의 법에 의한 미국 최초의 하천 직강화 사업의 하나였음. 1988년에 만들어진 로스앤젤레스 강의 친구들(The Friends of the Angeles River)은 옛날의 자연적인 하천으로 로스앤젤레스 강을 되돌리고자 하였음. 이 단체의 활동이 많은 관심을 모은 이유는 이 하천복원사업이 서로 떨어져 있는 여러 동네들을 연계시켜 주면서 광역 차원의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 로스앤젤레스 강을 따라 고등학생들이 퍼레이드를 벌이는 등 일반시민의 관심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임.

- 관광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 텍사스 주 샌 안토니오에 있는 샌 안토니오 강(San Antonio River)은 하천 복원사업으로 인해 유명 관광지가 되었음. 강의 양안에 상점, 식당, 호텔 등이 들어서면서 관광명소로 떠올랐음. San Antonio River Walk은 1921년의 대홍수 이후 홍수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그 조성사업이 시작됨. 원래의 계획은 강 전체를 복개하고 상부를 거리로 조성하는 것이었으나 한 여성환경단체의 반대로 이 계획은 취소됨.
- 캘리포니아주 소노마 카운티(Sonoma County)의 나파 밸리(Napa Valley)에 있는 소도시 나파(Napa)는 복개하천을 원상회복시킨 미국 최초의 도시 중의 하나. 이 사업은 도심재개발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음. 나파 시는 나파 계곡에 있는 포도농장과 경쟁하여 관광객들을 자기 도시에 더 끌어들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 이 재개발사업을 통해 복개하천 상부에 있던 도심부의 낡은 건물들을 허물고 이전의 하천의 모습을 되찾았음.

- 산책로 조성 및 생태계 보전

- 하천을 도시의 그린벨트로 보전하고 그 경관 가치를 회복하는 것은 하천의

수변공간이 각종 운동이나 달리기 장소로서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하천을 따라 산책로를 만든다는 생각은 점점 전 세계적으로 큰 호응을 받고 있음. 수변 산책로의 좋은 예로 워싱턴 DC을 가로지르는 Rock Creek Park을 들 수 있음. 콜로라도 주의 Platte River는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도시 산책로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곳에서 수천명의 사람들이 9개 도시를 서로 연결하는 60마일에 달하는 수변 산책로를 따라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있음. 많은 사람들이 이 강에 관심을 갖게 되자 강의 일부구간에서 식생복원사업도 벌어졌음.

- 1984년 콜로라도주 보울드 시는 도심부를 흐르는 보울드 강(Boulder Creek)의 일부인 3.5마일에 대하여 생태복원사업 시작. 캘리포니아주 버클리도 대학 캠퍼스를 통해 도시를 가로질러 샌프란시스코 만으로 흘러 들어가는 Strawberry Creek의 환경가치를 인정해 복원사업 추진. 버클리 대학은 학사행정책임자, 교수 등이 참여하는 Strawberry Creek T.F를 구성해, 무단 배출되던 하수의 오염원을 찾아내 제거하고 하천제방의 식생복원사업 추진